

이자스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필리핀에 관한 이야기

이자스민 선생님은 외국인을 지원하는 서울글로벌센터와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임인 물방울나눔회의 사무국장으로 봉사했고,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가정을 꾸려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인에게 소중한 것은요

필리핀은 지역과 종교에 따라 소중한 것이 다릅니다. 80퍼센트 이상이 천주교이지만 10퍼센트 정도는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나 차에 걸린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천주교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예절은요

필리핀에서는 남녀 누구나 악수가 가장 기본적인 인사입니다. 여성은 아는 사람들 사이는 양 볼에 가볍게 키스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워낙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어서 미국식 인사도 상관없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숙이며 인사하는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턱을 위로 올리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친근한 인사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버릇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사는 잘 아는 사람끼리 하는 인사라, 필리핀에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면 무례하게 생각하죠. 저는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필리핀에 가셔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웃어요.

거리를 지나는 여성에게 남성들이 ‘확~ 휘익~’ 하고 휘파람을 부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에게는 불쾌감을 주기도 하지요. ‘너 멋있다.’ 그런 표현인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보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판합니다. 또, 엄마가 애들을 부를 때 혀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기도 해요. 소리를 밖으로 내며 피스트(무성음, psst) 소리를 내는 건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자기 엄마 소리를 구분해요. 아이들이 여럿인 엄마는 아이마다 다른 소리로 부르기도 해요. 지프니(버스) 차장도 손님들을 부를 때 이와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길게 혹은 짧게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급한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만약 외국인이 이것을 흉내 내면 필리핀 사람들은 놀리는 것으로 알고 언짢을 수도 있어요.



음식과 옷차림은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별로 없는데, 지역에 따라 좀 다른 점은 있어요. 두리안을 아래지방에서는 맛있게 먹지만 마닐라에서는 냄새 때문에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왕따를 당할 정도입니다. 차에 두면 10분 만에 다 퍼져서 며칠 동안 냄새가 남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지역에서 돼지를 안 먹고, 더운 나라라 생선이 많아도 회로 먹지 않고 익혀서 먹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유일하게 회처럼 먹을 수 있는 ‘기닐라우이’ 라는 음식이 있어요. 생선을 불로 굽지 않고 식초에 절여 샐러드로 먹는 건데, 아래지방 음식으로 지금은 널리 퍼졌어요.

저는 필리핀 전통 옷을 한국에 와서 처음 입어봤어요. 그 정도로 필리핀에서는 전통 옷을 자주 입지

않죠. 어깨를 높이 세운 '데르노'라는 의상은 '필리핀어의 날'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만 입어요. 예전에는 그 높이로 양반과 평민을 구분했다는데, 요즘은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편해서 평소에는 거의 입지 않아요. 필리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오히려 한국에서 자주 입는 편입니다. 어깨를 높이 세우는 방법은 오로지 바느질 기술인데요, 한국에서 해 보려 했더니 잘 안 되던데요. 남자들이 결혼식 같은 때 입는 흰색 저고리 '바롱'은 파인애플에서 뽑은 실로 만든 겁니다. 파인애플 100퍼센트가 제일 비싸고, 바나나실과 섞인 것은 조금 싼니다.



가족, 필리핀의 남과 여

우리 필리핀에서는 8촌, 10촌까지도 다 가족이라고 합니다. 씨족마을처럼 살기 때문에 6촌까지도 다 사촌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는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고, 결혼하면 남편의 성으로 바꿨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 결혼 후 자기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게 됐어요.

필리핀은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 과정이라 대학교에 입학하면 16살입니다. 20살이면 대학을 졸업하죠. 여성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결혼하기 시작해요. 25세가 넘으면 노처녀라고 해요. 그리고 필리핀은 이혼이 없어요. 가톨릭이 국교이기 때문에 헤어지더라도 법적으로 이혼과 재혼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또 필리핀은 데릴사위 문화가 있어요. 그래도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일단 집에서 가사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차피 여성이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 시댁보다 친정에서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친정에 딸들이 사는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혼을 하는 막내딸이 부모를 모시고 재산을 물려받아요. 여성이 자기 집이니까 남성보다는 좀 더 기가 세다고 할까요. 그래서 집안일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더 강하기도 합니다. 현재 필리핀의 경제 상황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밖에서 생계활동을 하는 경우도 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또 필리핀인은 해외 이주노동이 많은데, 부모님을 주로 모시는 막내딸들도 일자리가 생기면 주저 없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딸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색깔

우리는 국기에 사용된 빨간색과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필리핀 국기는 유일하게 거꾸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은 국기 상에서 파란색이 위쪽, 빨간색이 아래쪽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전쟁이 발생하거나 하면 뒤집어서 빨간색을 위로 사용합니다. 빨간색이 용기를 의미하니까 용기 있게 일어나 싸우자는 거죠. KKK 독립운동 때도 뒤집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검정색과 흰색은 죽음과 탄생을 의미하죠. 흰색은 결혼이나 아이들의 세례식 때 사용하는 색입니다. 요즘은 여자아이는 핑크색, 남자아이는 파란색을 쓰지만 전통적으로는 모두 흰색을 썼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검정색은 안 좋게 여겨지기도 하고 빨간색은 위험을 뜻합니다.

* KKK: 카티푸난의 약자, 1892년 설립된 단체로 스페인 식민통치에 맞서 무장 항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벌였다.



명절

필리핀에서는 미인대회가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 행정구역 '동' 같은 지역 단위마다 상징하는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의 날을 피에스타(축제)로 정해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축제를 해요. 그때마다 미인대회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근 지역의 축제 날짜를 알아뒀다가 옮겨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을 정도로 여기 저기 피에스타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마늘아가씨 같은 농산물이름으로 미인대회를 하잖아요. 필리핀은 동네마다 미인대회를 해서 큰 대회에 내보내고 그래요. 5월은 꽃이 많이 피는 때니까, 사람의 꽃인 여성을 예쁜 옷으로 치장해서 차에 태워 행진하는 산타크루제이라는 퍼레이드를 합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BER가 들어간 달, 즉 9월(September)월부터 12월(December)까지가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9월부터 라디오에서 캐롤이 나오고, 12월초부터 새벽미사를 보지요. 12월 24일 밤 12시와 31일 밤 12시부터 밤새 파티를 합니다. 또 한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면 1년 내내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믿음도 있어요. 밤 12시 땡 하면 1분 동안 각자가 소망하는 것을 행동하면서 반복적으로 비는 풍습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싶으면 점프를 하고, 돈 벌고 싶으면 양손에 동전을 굴리다가 확 던져서 아이들이 줍게 만들기도 합니다. 호루라기를 불든, 박수를 치든, 소리를 지르든, 바닥을 구르든, 벽을 치든 작년의 안 좋았던 일을 날리면서 난리법석을 떨니다. 또 새해에 비질을 하면 복이 나간다는 믿음도 있어요.

비닐봉지에 쌀과 동그란 과일을 넣어 창문이나 문에 걸어놓으면 재물이 들어온다는 믿음도 있고, 식탁에 13종류의 동그란 과일과 동그랗고 빨간 치즈볼을 올려놓기도 해요. 폭죽도 12시가 땡 하면 집단적으로 터뜨리는데, 폭죽의 양으로 집집마다의 개성과 규모를 자랑하기도 해요. 제가 살던 다바우시에서는 폭죽놀이를 금지했는데 폭죽놀이로 인해 사고가 자주 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해외이주가 많은 필리핀의 특징, ‘발릭바안박스’

필리핀에는 ‘내 나라로 돌아오는 박스’라는 뜻을 가진 ‘발릭바안박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탁기만한 박스(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m)를 택배 서비스인데 그 안에 무엇을 채워도 보내는 비용은 12만원이예요. 필리핀은 해외 이주노동자가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배려 차원에서 세금 없이 가족에게 선물을 보내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박스 안에 필리핀에 있는 대가족에게 보낼 선물을 가득 채워서 보냅니다. 이 선물박스가 아주 커서 한 달 동안 집안에 두고 차곡차곡 채우지요. 그래도 필리핀에는 가족 수가 워낙 많아 막상 나눠가지려면 부족해요.



한국생활, 좋은 점과 힘든 점

필리핀은 섬나라라서 여행을 다니기 어려워요. 어딜 가도 물을 건너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다 차로 다닐 수 있고 교통이 편하니 좋습니다. 일년 내내 같은 계절인 필리핀에서 온 저는 4계절이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계절로 인해 시간의 흐름도 느낄 수 있고 다음 계절을 기다리게 되는 기대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이주여성으로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즐거운 점입니다. 처음에는 대학에 입학만 하고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와서도 10년간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워낙 고학력 사회라 박사들도 일을 못 구한다는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한 번 인터넷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저를 원하는 회사가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기 때문일 텐데,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많이 알게 됐어요. 한국인에게 필리핀을 소개해야하는 입장에 서게 되니 오히려 한국에 온 후 필리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기도 하고 시야도 넓어졌어요. 다른 문화권인 나라에 살게 되니까 조금 더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 필리핀을 무시하는 경우에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 필리핀에 관광을 다녀오신 분이 '네 나라는 도둑이 많다, 애들이 불쌍하다, 위험한 나라다, 못사는 나라다.'라고 하면 불쾌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게 냉장고다. 이게 전기밥솥이야.'라고 가르치려 하셨던 것도 황당했던 경험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에 대해 게으르다, 느려 터졌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필리핀은 열대기후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한국 사람처럼 빨리 움직이고 달리면 체력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씨에스타(낮잠) 문화도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인은 게으르다는 편견은 옳지 않아요. 필리핀은 학교도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리세스(간식)시간을 갖는데, 그것은 간식을 먹으며 더위를 식하는 휴식의 개념입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 수업시간에 한 번 더 리세스시간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니고 수업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신체리듬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어디서 왔느냐, 누구랑 결혼 했냐, 어떻게 결혼 했냐와 같은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죠. 그리고 가게에서 잘 못 알아듣거나 할 때 손을 바깥으로 저으면서 가라는 뜻이 '됐어. 됐어.'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같은 행동이 어떤 경우에는 나를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팀장님이 일찍 퇴근하라는 의미에서 손등으로 가라는 손짓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저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결혼이주여성은 어린 나이에 팔려온 사람이라는 시선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제 나이를 30대 후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이 드물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어딜 가도 한국어로 인사만 하면 귀엽게 봐주곤 했는데, 요즘엔 결혼이주자가 너무 많아서 서로 비교도 당하고 그래요. 또 뉴스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편견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익광고 중 한글을 잘 모르는 필리핀 엄마에게 알림장을 읽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광고의 배경이 흑백이거나, 한옥을 배경으로 하는 것, 필리핀 엄마가 한국어를 당연히 모르는 것으로 나오는 것 등 모든 것이 오히려 편견을 심어준다고 봐요. 실제로 요새는 한국어강좌도 아주 많아서 한국어를 그렇게까지 모르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마닐라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다바우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비행기로 1시간 45분 걸리니까 아주 먼 지역이죠. 마닐라에서는 따갈로그어를 썼는데, 다바우에서는 비사야어를 써요. 비사야어를 잘 못하니 따돌림도 꽤 당했어요. 두 언어는 비슷한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올릭'이라는 단어는 따갈로그어로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고, 비사야어로는 '욕심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발표하려고 손을 들면 선생님이 따갈로그어로 '자스민, 올릭'이라고 하면 그건 '다시 자스민 해봐'라는 뜻인데, 친구들은 '자스민, 욕심쟁이'로 알아들으니 제가 미움을 받기도 했던 거죠. 그렇게 어릴 때 부딪히면서 비사야어를 배웠던 경험이 눈치껏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됐어요.



이자스민 선생님이 일하는 서울글로벌센터는요

서울시청 외국인 생활지원과는 교육, 사회통합, 글로벌센터 등 세 파트로 나누어 있어요. 저는 글로벌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글로벌센터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 통합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에게 원스톱으로 은행, 핸드폰, 출입국, 관광, 상담 까지 제공해요.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부터 한국에서 자리 잡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일까지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물방울나눔회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